돼지에 관한 오해와 진실

보통 12~14마리의 새끼를 낳는 돼지들은 다산의 상징으로 신혼집에 돼지그림을 걸어 놓곤 한다. 과거 농경사회에 자녀가 많은 것을 다복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돼지는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며, 부여시대 높은 관직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사람들은 '돼지꿈'을 꾸고 난 뒤 복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처럼 돼지는 복을 상징하는 이면에 불결함과 추함, 게으름, 악덕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람들 인식 속에 돼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풀어 보도록 하자.

돼지는 식탐이 많은 동물이다?

사람들은 식탐이 많고 과식하는 사람들을 비유해 돼지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돼지는 자신에게 정해진 양 이외에 과식을 하지 않는 동물이다. 먹이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면 먹을 것에 대해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식탐이 많은 동물이란 오해는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찌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돼지는 머리가 나쁘다?

동물 중에 IQ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동물 중 하나가 개일 것이다. 개의 IQ는 평균 40~50인데 반해 돼지의 IQ는 50~60이다. 하버드대 생물학과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작성한 포유동물 IQ조사 리스트에 따르면 돼지는 원숭이 돌고래, 코끼리보다는 낮지만 가축 중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인술을 펼쳤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을 잘 따르던 돼지 '조세핀'의 지혜를 칭찬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슈바이처 박사의 글에 따르면 돼지는 밤중 변례에 시달리지 않으려 침실에 기어들어가 제일 좋은 모기장에 드러누울 줄 알았으며, 발이 아프자 스스로 병원에 와서 드러누워 수술 칼날도 견뎌냈다고 한다. 이처럼 돼지는 영리한 동물이다.

돼지는 지저분 하다?

돼지가 지저분 하다란 오해는 진흙 목욕을 하는 돼지의 습성 때문이다. 돼지의 진흙 목욕은 타 동물과 달리 땀샘이 없는 돼지가 스스로 체온조절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진흙 목욕을 통해 몸속의 진드기나 버룩 등을 떨어내기 위해서이다. 오히려 돼지는 깨끗한 동물에 속한다. 돼지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배설을 하며 자신의 몸 주변을 깨끗이 하는데 공을 들이는 동물이다. ◘